

Governance Opinion

< 금수저 >

일

반 대중들에게는 닭고기로 잘 알려진 하림 그룹은 최근 몇 가지 이벤트들로 세간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 우선 하림 그룹의 김홍국 회장이 프랑스 경매에서 나폴레옹의 모자를 24억 원에 낙찰 받아 구매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주목을 받았다. 나폴레옹, 그리고 24억 원짜리 모자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로운 내용들이었다. 하림 그룹은 그보다 먼저 STX그룹이 부실화되며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된 해운업체 팬오션을 인수하며 시장의 이목을 끌었다. 여전히 대중들의 머리 속에는 닭고기를 파는 하림이었는데 수 조원의 팬오션을 덜컥 인수하는 M&A를 성사시키며 시장의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팬오션을 인수하며 몸집이 커져버린 하림은 최근 셀트리온, 카카오와 함께 신규 대기업집단으로 선정되며 마지막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림 그룹의 김홍국 회장은 어린 시절 병아리 10마리로 시작해 축산업계 최초 대기업 반열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유명하다. 하림 그룹은 이제 닭과 돼지 등 양계축산 뿐만 아니라 식품과 홈쇼핑, 그리고 해운업체까지 그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더 이상 '닭고기 하면 하림'이 아닌 대기업 하림 그룹으로 각인되고 있다.

하림 그룹의 외형과 사업 영역은 대기업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다. 그렇다면 과연 하림 그룹의 지배구조 역시 그에 걸맞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을까?

하림 그룹의 기업 지배구조

하림 그룹의 출발이자 뿌리와도 같은 하림은 1990년에 설립되어 1997년 코스닥 시장에 등록되었다. 2016년 3월말 기준으로 하림의 총 자산은 5,550억 원 수준이며, 2015년 한 해 매출은 약 7,950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하림을 지배하고 있는 하림의 최대주주는 제일홀딩스이며, 2016년 3월말 기준으로 지분율은 약 47.92%이다. 그리고 하림 그룹 회장인 김홍국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1.5%에 불과하다.

그런데 제일홀딩스의 최대주주는 아이러니하게도 제일홀딩스이다. 2016년 3월 말 기준으로 제일홀딩스는 발행주식수인 5,088,731주 가운데 4,081,991주를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로는 약

80.22%에 달한다. 나머지 잔여주식 약 20% 가운데 8.26%는 김홍국 회장이 보유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한국섬벤이 7.35%, 그리고 올품이 약 1.48%를 보유하고 있다. 결국 제일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지분 8.26%를 보유한 김홍국 회장이 하림 그룹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셈이다.

자기주식 80%라는 기묘한 형태의 지배구조, 그리고 거대 하림 그룹을 지배하는 제일홀딩스는 과연 어떻게 성립된 것일까?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당시 하림의 최대주주는 제일곡산이었다. 그리고 2010년 말 제일곡산의 최대주주는 제일사료로 제일곡산의 지분 96.2%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던 제일사료의 최대주주는 맥시칸산업과 하림유통, 그리고 명보쇼핑 등이었다. 그런데 제일사료는 다시 맥시칸산업, 명보쇼핑, 하림유통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즉 제일사료는 맥시칸산업, 명보쇼핑, 하림유통의 지배를 받는 동시에 이들을 지배하고 있는 셈이었다. 이 같은 상호주식 보유는 상법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어 하림유통, 명보쇼핑, 맥시칸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95.83%의 의결권이 제한되었다. 당시 제일사료의 정확한 주주구성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하림유통과 명보쇼핑, 그리고 맥시칸산업을 제외한 약 4%의 의결권을 보유한 누군가가 제일사료를 지배하고 이를 통해 제일곡산과 하림까지 지배하는 구조였던 것이다. 대부분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나머지 소수의 의결권을 보유하는 자가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구조는 지금의 제일홀딩스나 과거의 제일사료나 많이 닮아있다.

그리고 2011년 1월 하림그룹의 지배구조는 대대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우선 당시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던 제일사료가 제일홀딩스로 사명을 바꾸면서 제일사료를 물적분할했으며, 동시에 무수히 많은 홀딩스가 분할 설립되었다. 제일곡산은 제일곡산과 곡산홀딩스로 분할했으며, 천하제일은 천하제일과 천하홀딩스로 분할했다. 그리고 맥시칸산업은 맥시칸산업과 맥시칸홀딩스로 분할했으며, 하림유통은 하림유통과 하림유통홀딩스로 분할했다. 마지막으로 명보쇼핑은 명보쇼핑과 명보쇼핑홀딩스로 분할했다. 그리고 곡산홀딩스, 천하홀딩스, 맥시칸홀딩스, 하림유통홀딩스, 명보쇼핑홀딩스는 제일홀딩스에 흡수합병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일홀딩스의 대규모 자기주식이 발생하게 되었다. 제일홀딩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맥시칸산업과 하림유통, 명보쇼핑이 제일홀딩스로 흡수되면서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제일홀딩스 주식이 자기주식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과거 하림유통과 명보쇼핑의 정확한 주주구성은 확인되지 않으나 맥시칸산업의 경우 제일홀딩스로 흡수되기 전인 2010년 말에 김홍국 회장이 약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김홍국 회장은 맥시칸산업 등 보유하고 있던 지분이 제일홀딩스로 합병되면서 합병 신주를 교부 받아

2011년 말 기준으로 제일홀딩스의 지분 7.36%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2011년 말 제일홀딩스의 주주구성에서 김홍국 회장보다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등장하게 된다. 바로 한국섬벤이다. 당시 한국섬벤이 보유하고 있던 제일홀딩스 지분은 약 7.49%로 김홍국 회장의 7.36%보다 근소하게 높은 수준이다.

갑자기 등장한 한국섬벤은 과연 정체가 무엇일까?

한국섬벤은 1999년 동물약품제조를 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0년에 지분 100%를 김홍국 회장이 보유하고 있었다. 2009년 말 한국섬벤은 자본금 20억 원에 총 자산은 656억 원 수준이었으며, 약 557억 원의 매출과 7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알짜기업이었다. 그런 한국섬벤은 2010년 물적분할을 통해 한국섬벤과 한국섬벤판매로 분할하게 된다. 분할을 통해 기존의 한국섬벤이 한국섬벤판매로 사명을 변경하고 새로 한국섬벤이 설립되었으며, 한국섬벤판매가 한국섬벤을 100% 지배하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섬벤판매는 김홍국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0년 말 한국섬벤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분할을 통해 신규 설립된 한국섬벤이 명보쇼핑(35.09%)과 하림유통(55.36%), 천하제일(29.50%), 그리고 제일곡산(1.28%)의 지분을 매도가능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들 법인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년 1월 각각 분할된 이후 제일홀딩스로 흡수합병된 법인들이다. 결국 한국섬벤이 어떠한 경위를 거쳐 이들 법인들의 지분을 취득했는지 확인되지는 않지만 이 법인들을 통해 제일홀딩스의 지분을 김홍국 회장보다 더 많이 보유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2010년 한국섬벤의 현금흐름표에는 한국섬벤이 매도가능증권 취득에 약 154억 원을 사용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2011년 제일홀딩스 설립을 통해 김홍국 회장은 자신 명의의 제일홀딩스 지분과 자신의 개인회사인 한국섬벤판매의 자회사인 한국섬벤을 통해 제일홀딩스를 지배하게 되었으며, 제일홀딩스를 통해 하림 등 그룹의 주요 회사들을 지배하는 지배구조를 수립하게 되었다.

그리고 김홍국-한국섬벤판매-한국섬벤-제일홀딩스-하림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는 2011년 말까지 유지되었다. 그런데 2012년 소리소문 없이 하림 그룹의 지배구조에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바로 김준영의 등장이다. 2011년 말까지 한국섬벤판매는 김홍국 회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회사였는데 2012년 말 한국섬벤판매의 지분이 전량 김홍국 회장에서 김준영으로 변한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섬벤판매가 보유하고 있던 농수산홀딩스가 제일홀딩스에 흡수합병되면서 한국섬벤판매는 직접 제일홀딩스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제일홀딩스의 소유구조는 김홍국에서 한국섬벤판매와 김준영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하림 그룹의 지배구조 정점에서는 조용히 묵직한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었지만 대외적으로는 김준영이 누구인지, 어떠한 이유로 김준영의 제일홀딩스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 다만 김준영이 김홍국 회장의 후계자일 것이라는 시장의 추측이 있었으며, 일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김홍국 회장에게 김준영이라는 아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전부였다.

2012년까지 한국섬뽕판매는 과거 함국섬뽕과 동일하게 동물약품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었다. 2012년 말 한국섬뽕판매의 자본금은 20억 원으로 과거와 동일했지만 수백억 원대의 안정적인 매출과 보유 주식 처분 이익 등 수익이 누적되며 자산총액은 1천억 원을 돌파할 수 있었다. 2012년 한국섬뽕판매의 총 매출은 약 860억 원이었는데 그 중 726억 원이 하림 등 특수관계 법인들과의 거래에서 발생되었다. 김준영의 한국섬뽕판매는 계열사의 지원과 그룹 내 계열사들의 이합집산 과정을 통해 하림 그룹의 정점에 우뚝 설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섬뽕판매는 2013년 1월 올품을 인수하여 합병하게 된다. 한국섬뽕판매는 당시 제일홀딩스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올품 지분 전량을 주당 1,129원에 취득하였다. 한국섬뽕판매가 올품을 인수하는 데 사용한 투자금은 약 780억원 이상이었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비싸 보이지 않는 것은 그 만큼 올품이 우량한 기업이었기 때문이다. 올품이 한국섬뽕판매에 매각되기 직전인 2012년 말 올품의 총 자산은 약 1,163억 원이었으며, 부채는 약 471억 원 수준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만 약 692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올품의 수익가치까지 고려한다면 한국섬뽕판매가 올품 인수에 지불한 780억 원은 절대 비싸지 않은 것이다. 어쩌면 한국섬뽕판매가 올품을 다소 저렴하게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은 올품이 한국섬뽕판매에 매각되기 직전인 2012년에 갑작스레 적자를 기록해서인지도 모르겠다. 올품은 2012년 약 2,92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나 높은 매출원가 등으로 인해 45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2011년에는 2,800억 원의 매출과 68억 원의 영업이익을, 그리고 2010년에는 2,416억 원의 매출과 18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과 비교해 본다면 2012년 올품의 갑작스런 적자 발생이 한국섬뽕판매에는 보이지 않는 이득이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올품을 인수한 한국섬뽕판매는 즉시 올품을 흡수 합병하였으며 사명 역시 올품으로 변경했으며 여전히 김준영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김준영의 올품은 2013년 말 기준 총자산 2천억 원에 매출 3,460억 원으로 하림 그룹 후계자의 회사다운 모습을 점차 갖추게 된다.

김준영의 다음 행보는?

김준영-올품-한국섬뽕-제일홀딩스-하림으로 이어지는 김준영의 하림 그룹의 지배구조가 확립된 이후 다시금 올품의 움직임이 조금씩 포착되고 있다.

우선 올품이 하림홀딩스와 제일홀딩스로부터 에코캐피탈 지분 전량을 취득해 종속회사로 편입하였다. 2015년 1월 올품은 에코캐피탈 주식 450만주를 하림홀딩스와 제일홀딩스로부터 매입했다. 2010년에 설립되어 할부금융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에코캐피탈은 하림홀딩스가 53.3%, 그리고 제일홀딩스가 46.7%를 나눠 보유하고 있었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에코캐피탈의 총 자산은 약 1,300억 원 수준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 자산은 약 512억 원 수준이었다.

그리고 올품은 자회사인 한국섬벤에 약 210억 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로 자금을 수혈했다.

올품의 2015년도 현금흐름표에 따르면 올품이 에코캐피탈을 종속회사로 신규 취득하고 기존 종속회사인 한국섬벤에 유상증자 등을 실행하는데 투입된 금액은 약 645억 원으로 추정된다. 그 중 한국섬벤 유상증자에 투입된 금액이 약 210억 원이며, 에코캐피탈 지분 취득에 사용된 금액이 약 435억 원으로 추정된다.

우선 올품의 에코캐피탈 주식 취득은 앞서 한국섬벤판매가 올품을 취득할 당시와 유사하게 비교적 저렴하게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에코캐피탈의 순자산가치에도 못 미치는 약 435억 원으로 매수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에코캐피탈 역시 올품에 매각되기 직전 실적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에코캐피탈은 올품에 매각되기 직전인 2014년 약 130억 원의 매출에 7.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반면 2013년에는 113억 원의 매출에 57.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2012년에도 81억 원의 매출에 24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앞서 살펴본 한국섬벤판매에 매각되기 직전에 올품의 실적이 급락하듯 올품에 매각되기 직전 에코캐피탈의 실적도 급락했다. 기묘한 우연이다.

에코캐피탈의 저가 매각에 대해 하림 그룹은 언론 보도를 통해 공정거래법상 행위제한 위반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에코캐피탈을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매각 사유를 밝혔다. 그 사유가 무엇이든 알짜 금융회사인 에코캐피탈을 저가에 매수하게 된 올품으로서는 뜻밖의 행운을 거머쥐게 된 셈이다.

그리고 올품이 한국섬벤에 유상증자를 통해 투입한 210억 원의 유상증자 대금은 고스란히 제일홀딩스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되었다. 2015년 제일홀딩스는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 약 510억 원을 조달했으며, 한국섬벤이 증자에 참여한 셈이다. 증자를 통해 2015년 말 한국섬벤의 제일홀딩스 지분율은 7.35%로 증가했다. 2014년 말 한국섬벤의 제일홀딩스 지분율은 6.89%였다. 그리고 제일홀딩스가 유상증자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하림 그룹이 팬오션을 인수하는데 다시 투입되었다.

정리하면 김준영의 올품은 그룹 내 알짜 금융계열사인 에코캐피탈을 저가에 인수하여 사업의 확장을 도모하게 되었으며, 한국섬벤을 통해 제일홀딩스와 팬오션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게 되었다. 김홍국의 하림 그룹에서 김준영의 하림 그룹으로 한 발씩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정작 하림 그룹에서 김준영의 경영 활동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림 그룹 전반에 대한 김준영의 지배력은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과연 김준영이 누구이며, 또 그의 경영자로서의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 것이다. 물론 하림 그룹에 대한 점진적인 김준영의 지배력 강화가 김준영 자신의 작품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올품의 이사회에서도 김준영의 이름을 확인할 수가 없다. 현재 올품의 이사회에는 하림 그룹 인사들이 포진되어 있다. 결국 김준영은 그저 누군가의 구상에 따라 하림 그룹의 한가운데로 진입하고 있을 뿐 김준영 자신의 경영적 성과는 확인하기 어려운 셈이다.

게다가 올품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올품은 2016년 1월 보통주 62,500주를 주당 160,000원에 매수하여 소각했다고 했다. 올품의 주식은 전량 김준영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올품이 자기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했다면 이는 올품이 김준영으로부터 자기 주식을 매수했다는 얘기가 된다. 올품이 김준영으로부터 매수한 자기주식은 100억 원 규모이다. 김준영의 호주머니에 100억 원이 흘러 들어갔고 과연 김준영이 이를 어디에 사용할지는 미지수다.

하림 그룹의 김홍국 회장은 수많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자수성가의 희망을 보여주었다. 젊은이들에게 흙수저라는 말에 좌절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적극적인 도전정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24억 원짜리 나폴레옹 모자를 통해서도 그는 '불가능한 것은 없다'는 긍정적 사고를 당부했다. 하지만 정작 젊은이들에게는 열정과 도전을 역설하며 다른 누군가에는 수 조원 짜리 금수저를 쥐어 준 김홍국 회장의 양면적인 모습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